

# “완주와 전주는 하나... 특별자치도 만들자”

### 시민단체, 통합 재추진 주장... “완주군민의 우려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안전장치 필요”

전주·완주 통합이 불발된 지 9년 만에 통합시를 희망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주시장에 울려 퍼졌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한마음으로 찬란한 역사를 복원, 통합시를 건설하자”면서 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이날 연합회는 “완주와 전주는 원래 하나였다”면서 “사악한 일제가 1935년 강제적으로 강요한 완주·전주 분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운을 폈다.

이어 “완주·전주통합을 계기로 전북의 독자적인 강소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를 이뤄 내자”면서 “전북의 대변력! 다시 전라도의 수도, 호남제일성의 옛 영광을 되찾아 대전환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한마음으로 찬란한 역사를 복원, 통합시를 건설하자”면서 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완주·전주통합 추진이 미래를 보장하고 완주군민의 뜻을 살리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세 차례 통합에 실패했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통합 실패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추진과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에 7가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지난 2012년 4월30일 당시 전북지사, 완주군수, 전주시장의 합의 발표한 통합 건의문을 새롭게 검토해 별도인 상설대책기구에 제시 △2012년 6월 12일 완주·전주 상생협력 발전사업 실험협약서도 현시점에서 재검토 △완주·전주상생통합 협의사항 5개 분야 45개 항목 86개 세부사항을 새롭게 검토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뉴스스



전주시는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민 공약평가단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전주시 시민 공약평가단'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 ‘시민과의 약속’ 체계적 관리 지원

### 민선8기 전주시 시민 공약평가단 위촉·첫 회의 가져

전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 공약평가단을 위촉했다.

시는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민 공약평가단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전주시 시민 공약평가단'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시민 공약평가단을 공개 모집했으며, 지원자 중 경력과 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 공약평가단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공약평가단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모든 전주시민들을 대표해 활발한 공약평가단 활동으로 전주가 더 큰 꿈을 꾸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공약평가단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약 실행계획과 변경안 심의, 추진상황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선8기 전주지역사업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공약평가단 위원 위촉에 이어 평가단을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또, 민선8기 전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 등이 이어졌다.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공약평가단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약 실행계획과 변경안 심의, 추진상황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선8기 전주지역사업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공약평가단 위원 위촉에 이어 평가단을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또, 민선8기 전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 등이 이어졌다.

## 전주시설공단, 예비 장례지도사 역량 강화 위한 현장실습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장례문화의 발전을 위해 장례지도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전주장례지도사교육원 교육생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지도사 육성 교육과정 현장실습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 장례지도사들에게 화장시설과 장사시설에 대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역량 있는 장례지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단은 연 3회 예비 장례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단은 화장시설로 '전주승화원'을, 장사시설로 봉안시설인 신태·외 '봉안당(원)'을, 장사시설로 매장시설인 '효자공원묘지'와 자연장시설인 '효자자연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례지도사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시신 관리, 의례 지도 및 빈소 설치 등의 장례 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시·도에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전주장례지도사교육원은 전라북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매년 40여 명의 장례지도사가 배출된다. /김경수 기자

## 에너지 자립도시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주시, 내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등 보급사업 예산 32억2000만원 투입

국내 최초로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충기로 했다.

전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32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내년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9억 원을 투입해 삼천동과 효자동 지역의 260개소에 78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게 된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층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설치하거나 특정지역의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에 1층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는 주택지원사업(300개소)과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2개소) 설치에 4억8000만 원을 투입해 872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이들 3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12억과 비교해 8억8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시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도에는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개소 수를 2배 이상 늘려 35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2개소

(100kw) 규모에서 매년 최소 5개소(250kw)로 늘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공모사업뿐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배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1억5000만원)과 완산체편공원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7억5000만원, 200kw) 설치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ESG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계적인 ESG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주민출자를 통한 이익공유 등 다양한 추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환경관리원 10명 신규 채용 나선다

전주시는 직영 청소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에 종사할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1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퇴직 예정자와 결원지역 충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한 만20세 이상~만60세 미만 시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대우빌딩 6층

청소지원과(기린대로 213)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체력평가, 면접심사 순으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최종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청소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 평가해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1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동절기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지원

전주시가 노숙인과 에너지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로 했다.

시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동절기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시는 그동안 위기정보 시스템으로 발굴된 대상자들 중 주민등록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단속 종결 처리돼 사각지대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조사 시 중점 발굴대상으로 분류해 실거주지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로 했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 단가스 전기료 체납가구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족가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로 복지서비스 미지원가구 △거리 노숙인 등 동절기 위기 상황이 가중된 가구다.

특히 시는 동절기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 연탄 사용 가구와 LPG 및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조사해 위기사유 발생 시 연탄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

시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동절기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그동안 위기정보 시스템으로 발굴된 대상자들 중 주민등록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단속 종결 처리돼 사각지대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조사 시 중점 발굴대상으로 분류해 실거주지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동절기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 연탄 사용 가구와 LPG 및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조사해 위기사유 발생 시 연탄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

시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동절기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축! 전주매일 창간

## 최고의 성적을 위한 최적의 고창부안축협

# TMF섬유질 발효사료

100년을 향한 힘찬 출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 신제품 꿈의 조사료 출시

사진 TMF사료공장 전경

주소: 전북 고창군 흥덕면 부안로 423  
전화: 본점(063)560-3000, 경제사업장(063)560-3030